

스포츠

12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KLPGA 한국여자오픈 | '무관의 1인자' 오지현, 마침내 메이저 왕관

최종 라운드 '7버디쇼'...2억5000만원 잭팟

최종 17언더파...2위 김보아 8타차 따돌려
대상 포인트 272점·상금 5억1906만 독주
오지현 "자신감 있는 샷 덕분에 타수 줄어"

오지현(22·KB금융그룹)의 질주가 심상치 않다. 우승 트로피 하나 없이 대상 포인트 1위를 달리던 '무관의 1인자'가 메이저대회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두며 독주체제를 예고했다.

오지현은 17일 인천 서구 베어즈베스트청라 골프클럽(파72·6869야드)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제32회 한국여자오픈(총상금 10억원·우승상금 2억5000만원) 최종라운드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하며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17언더파 271타로 추격자 김보아(23·넥시스)를 8타 차이로 따돌렸다.

올 시즌 초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판도를 주도한 주인공은 장하나(26·비씨카드)였다. 3월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과 4월 크리스 K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두면서 대상과 상금 부문에서 단독선두를 달렸다. 그런데 이러한 일방적인 구도는 이달 들어서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물밑에서 숨죽여있던 오지현이 치고 올라오면서부터였다.

오지현은 한국여자오픈 직전까지 출전한 10개 대회에서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준우승이 세 차례나 될 만큼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다. 오지현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컷 탈락 없이 매번 상위권에 포진하면서 대상 포인트와 상금을 차곡차곡 쌓았고, 결국 10일 막을 내린 에스오일 챔피언십 이후 대상 포인트 선두로 나



'무관의 제왕'이 비로소 트로피에 입을 맞쳤다. 오지현(오른쪽)은 17일 인천 서구 베어즈베스트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제32회 한국여자오픈 최종라운드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앞선 10개 대회에서 준우승만 3회뿐, 우승과 인연이 없던 오지현이 시즌 첫 승을 기록한 뒤 축하를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제공 | KLPGA

섰다. 무관의 1인자가 된 오지현은 합찬 가속도를 냈다. 메이저대회인 한국여자오픈에서 마침내 우승을 일궈내면서 대상 포인트(272점)와 상금(5억1906만원) 부문에서 독주 체제를 가동시켰다.

11언더파 205타 단독선두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오지현은 일찌감치 우승을 예약했다. 8언더파 2위였던 김보아가 전반 1타만을 줄이는 사이, 2~3번 홀 버디와 8번 홀 버디로 격차를 벌렸다. 이어 9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했지만, 후반 첫 10번 홀에서 다시 버디를 낚아 이를 만회했다. 우

승이 눈앞에 가까워지자 오지현은 더욱 힘을 냈다. 14~16번 홀 3연속 버디를 몰아치며 자신의 통산 5승이자 메이저 2승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생애 첫 내셔널 타이틀을 품은 오지현은 "오늘 라인이 보이는 대로 자신감 있게 샷을 한 덕분에 타수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동계훈련에서 체력을 많이 보강한 점도 도움이 됐다. 올 시즌 준우승이 많아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우승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활짝 웃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남자농구대표팀 원정 2차 평가전

라틀리프 37점·10R 캐리 일본에 이틀 전 패배 설욕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이 한일전에서 반격의 1승을 거뒀다. 허재 감독이 이끄는 남자농구대표팀은 17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일본과의 2차 평가전에서 37점·10리바운드를 기록한 귀화선수 리카르도 라틀리프(현 대모비스)를 앞세워 99-87로 승리했다. 지난 15일 1차 평가전에서 80-88로 진 한국은 반격의 1승을 거두며 1승1패로 원정 평가전을 마쳤다.

오세근(KGC), 김중규(LG), 이종현(현대모비스) 등 주축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대표팀에 제외된 한국은 높이 싸움에서 밀려 2쿼터 중반까지 고전했다. 하지만 지역방어를 펼쳐 분위기를 바꾸는데 성공하며 43-44로 2쿼터를 마쳤다. 3쿼터 초반 라틀리프가 필살슛에 이은 추가 자유투를 성공한 후 허웅(10점)이 3점포를 쏴가 53-49로 전세를 뒤집었다. 이후에도 이종현(9점·3리바운드)의 연속 4득점과 허웅의 외곽포로 리드를 지켰다. 69-67로 3쿼터를 마친 한국은 정효근(3점·2리바운드)의 3점포로 4쿼터를 시작했고, 김준일(8점·2리바운드)이 중거리슛 4개를 잇따라 터뜨려 84-73까지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일본과의 평가전을 마친 한국은 이달 28일 중국과의 2019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오세아니아 1차 예선 A조 5차전에 이어 7월1일 홍콩과 6차전을 모두 원정으로 펼친다. 한국은 현재 2승2패로 조 3위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18번홀 짜릿한 역전 버디...박상현 시즌 2승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최종 21언더파
14번홀 더블보기 이상호 제치고 2억원 대박

경험의 차이에서 우승트로피의 주인공이 결정됐다. 박상현(35·동아제약)이 17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CC 서코스(파72)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억원)에서 역전승을 거두고 시즌 2승을 달성했다. 박상현은 최종 4라운드에 5언더파 67타를 기록해 최종 합계 21언더파 267타로 3라운드까지 1타차 선두에 올랐던 이상호(31·20언더파 268타)를 따돌렸다. 시즌 첫 다승자가 된 박상현은 우승상금 2억원을 챙겼다.

둘은 챔피언조에서 함께 경기를 치렀다. 전반 9홀을 마쳤을 때만해도 데뷔 10년만에 첫 우승을 노리는 이상호가

우력해보였다. 이상호는 전반 9홀에서 3타를 줄였다. 반면 박상현은 버디 2개와 보기 1개를 기록했고, 둘의 격차는 4타차로 더 벌어졌다.

이 때부터 박상현의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됐다. 박상현은 10~12번 홀까지 연속 버디를 잡아냈다. 그 사이 이상호는 보기와 버디 한 개씩을 맞바꿨다. 14번 홀(파4)이 큰 변곡점이 됐다. 박상현이 보기를 기록하며 먼저 홀 아웃했다. 그런데 이상호가 짧은 보기 퍼트를 놓쳐 한계선에 2타를 잃었다. 둘은 결국 동타가 됐다. 이후 버디를 하나씩 잡은 박상현과 이상호는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승부를 가리게 됐다. 박상현은 버디를 낚으면서 치열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상호가 박상현의 맹추격에 심리적으

로 쫓기며 14번 홀에서 더블 보기를 범한 것이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부부가 함께하는 할부형 390만원 모집

★ 국내최초 파격적인 혜택!

- 5성급 단독 스위트룸빌라 (무엇보다도 사도도 리조트) 20박 완전무료
- "골프 멤버십 회원가" (그라운드와 골프장 이용가 포함)
- 서평·해변승마·발리커피농장 체험

상담문의 & 청담동 홍보관 방문문의 | 박현주사 02-897-1551 (내선 02) 6239-8002

한치적통전화 62-361-708-108

휴대용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며칠 차고있어 보니 부드럽고 시원해서 좋구나
▶무릎이 편하면 만사가 즐겁고 행복하다!

무르팍엔에는 5가지 광물(엘라이트, 그라파이트, 토르말린, 철보석, 의료용 자석)이 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의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뿐해짐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겹옷 속에 차고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 보면 정말 만족하실 것이고 이곳저곳 소문 많이 내주세요~

무료체험 불만족시 환불보장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르팍엔 1899-5484

무르팍엔은 5가지 광물(엘라이트, 그라파이트, 토르말린, 철보석, 의료용 자석)이 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의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뿐해짐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겹옷 속에 차고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 보면 정말 만족하실 것이고 이곳저곳 소문 많이 내주세요~

최근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體)에너지 무르팍엔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께 게 사랑받고 있는데 5가지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원적외선 파장과 음이온이 방사 및 방출되는 무르팍엔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휴대용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 분~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전기가 필요없는 허리조이의 놀라운 성능

제품명: 허리조이
제조/판매원: 솔원
재원: 갈아: 대, 중, 소
두께: 5mm/ 무게: 210g
제품용도: 불편한 허리에 착용
제품특징: 가볍고 반영구적 손쉽게 가능
제조국: Made in Korea

착용해보시고 확인하세요!

몸이 차가워지면 몸과 마음 그리고 배사의 의욕이 사라지는데 몸이 차가워지면서 생기는 현상을 바로잡아 주는데 필요한 것이 **허리가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

몸이 차가워지면 몸과 마음 그리고 배사의 의욕이 사라지는데 몸이 차가워지면서 생기는 현상을 바로잡아 주는데 필요한 것이 **허리가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

몸이 차가워지면 몸과 마음 그리고 배사의 의욕이 사라지는데 몸이 차가워지면서 생기는 현상을 바로잡아 주는데 필요한 것이 **허리가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

전기 없이 스스로 음이온 원적외선 파장으로 발열되는 허리조이 발열벨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천연광물에서 나오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다량 방사 및 방출되는 제품이다. 허리조이 발열벨트는 5가지 광물(엘라이트, 그라파이트, 토르말린, 철보석, 의료용 자석) 등 그라파이트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며 허리부위를 전기없이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물질이며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 가도록 발열 줄 것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겹옷속에 차고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조이 1899-5484